

# 제주지역 정신지체아 부모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 조사

김 남 진\* · 김 영 희\*\*

## 목 차

I. 서 론	III. 연구결과
II. 연구방법	IV. 결론 및 제언

## I. 서 론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설계도로써 단순한 교육내용만으로 교육과정을 볼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 내용, 운영 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시대의 변화와 사회 현상에 따라 그 내용이 교육에 반영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제4차 일반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1983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3-13호에 의해 모든 장애 영역에 대해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으며, 1989년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개정·공포함으로써 국가 수준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탈산업사회 패러다임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협력적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주관주의적 접근과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현실과의 괴리, 열악한 학교 교육여건을 무시한 교육 현장 적용 등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며 시행 초기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권요한·이만영, 2004; 김길순·변찬석, 2005; 이유훈·김경진·박정연, 2001). 또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본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내용 수준이 정인지체 학생의 다양한 지적 능력상의 차를 고려하기에 미흡하며(강창욱, 2005),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학교 급별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준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직업 교과와 내용도 실제 사회생활 면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내용의 일관성 및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필요로 하며,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역시 교육과정을 재구성도록 규정(교육부, 1998)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알맞게 재구성되려면 학생의 흥미나 관심, 지적수준, 학생의 요구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학부모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아직 정신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기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인지체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은 가정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경험이 가능하므로 학교와 함께 부모의 일관성 있는 협력이 요청 된다. 부모의 참여 없는 교육의 효과는 증진시킬 수 없으며 비록 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부모는 아동의 보호자이고 교육적 개입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부모도 장애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졌으며, 다양한 교육내용을 원하고 있다(고성대, 1994; 국립특수교육원, 2000; 김영일·강정화, 2005; 우정한·이성환, 2005).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부모의 역할은 장애발생의 원인자이면서, 서비스 개발자 그리고 권익옹호를 위한 투사, 자녀를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교사 등 다양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Turnbull & Turnbull, 1997).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에서의 부모참여(우정한 외, 2005), 특수학급의 운영에서의 부모참여(국립특수교육원, 1995, 영광 외, 2004)에 대한 연구(우정한·이성환, 2005 재인용)와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김길순·변찬석, 2005)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의 중요성이 명백하고 특수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요하는 상황 하에서 현재 실시되는 정인지체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인지체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인지체아 부모의 욕구 수준을 조사하여 더 나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과목 중요도에 대한 정인지체아 부모의 인식 차이를 밝힌다.

둘째,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과목별 중요도에 대한 정신지체아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밝힌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제주지역 정신지체아 부모의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정신지체 학교 해당 학부모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157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결과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작성되었다.

<표 1>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구 분	내 용		문항수
기 초 조 사	성별/연령/최종학력/자녀의 학교급별/자녀의 장애정도 /자녀의 학교 유형		6
교 육 과 정	교 과	국어/사회/수학/과학/건강/예능/직업	12
	재 량 활 동	교과재량활동/창의적재량활동	8
	특 별 활 동	개발활동/자치활동/봉사활동/적응활동/행사활동	8
	치료교육활동	언어치료/일상생활훈련/작업치료/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행동	12

### 2.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의 문제점을 추출하기 위해 정신지체학교 교사 10명과, 학부모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예비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전후 검사를 통하여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645~.824로서 양호한 편이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하여 배부하였으며, 발송한 설문지는 200부로 그 중 160부(80%)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답한 3부를 제외한 157부를 최종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된 모든 답변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부호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를 5점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처리하였다. SPSS WIN 12.0을 이용

하여 이루어진 자료처리 방법을 연구 목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과목 중요도에 대한 정신지체아 부모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평균차의 유의미성은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량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과목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밝히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학부모의 연령(3), 학력(3), 자녀의 학교급별(4), 장애정도(3)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변량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과목의 중요도

<표 2>는 전체 부모들의 교육과정 활동영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 의 평균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치료교육활동(M=3.60), 재량활동 (M=3.31)의 순이었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평균은 3.17로 중요도가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영역간의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결과는 0.1%(F=35.36)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정신지체 아 부모들이 교과 위주로 편성된 현행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점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교육과정 활동영역간 중요도 차이

활동영역	기술 통계		반복측정 변량분석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교과	3.63	.90	22.576	3	7.53	35.36***
재량활동	3.31	1.00				
특별활동	3.17	.93				
치료교육활동	3.60	.93				

\*\*\*  $p < .001$

각 활동영역별 편성과목들 간의 중요도 차이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과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국어의 평균이 3.77로 가장 높고, 사회(M=3.74), 건강 (M=3.65), 직업(M=3.63), 과학(M=3.56), 예능(M=3.41), 수학(M=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이러한 과목별 중요도의 평균 차이는 변량분석 결과 0.1%(F=8.83)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활동에 있어서는 교과재량의 평균이 3.39로 창의적 재량의 평균 3.33을 앞서고 있으며, 두 과목간 평균의 차이는 5%(F=4.2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특별활동의 편성과목도  $p < .05$ 수준(F=2.4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데 적용활동의 평균(M=3.30)이 가장 높고 자치활동(M=3.28), 개발활동(M=3.16), 행사활동(M=3.06), 봉사활동(M=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활동영역별 편성과목들 간의 중요도 차이

활동영역	편성과목	기술 통계		반복측정 변량분석			
		평균	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교과	국어	3.77	1.08	24.84	6	4.14	8.83***
	사회	3.74	1.00				
	수학	3.35	1.21				
	과학	3.56	1.07				
	건강	3.65	.99				
	예능	3.41	1.16				
재량활동	교과재량	3.39	.99	.95	1	.95	4.21*
	창의적 재량	3.33	1.02				
특별활동	개발활동	3.16	1.07	8.13	4	2.03	2.44*
	자치활동	3.28	1.16				
	봉사활동	3.01	1.17				
	적용활동	3.30	.96				
	행사활동	3.06	1.11				
치료교육	언어치료	3.55	1.01	17.59	4	4.40	8.01***
	일상생활	3.71	1.19				
	작업치료	3.38	.99				
	감각운동지각	3.55	1.02				
	심리행동적응	3.72	1.05				

\*  $p < .05$ , \*\*\*  $p < .001$

치료교육 역시 0.1%(F=8.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중요도의 평균 정도를 보면 심리행동적응(M=3.72)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상생활(M=3.71), 언어치료와 감각운동지각(M=3.55), 작업치료(M=3.38)의 순이었다.

## 2. 부모의 배경변인별 편성과목의 중요도 인식

### 1) 교과 편성과목

#### (1) 국어

부모의 연령에 따른 국어 과목의 중요도 인식을 살펴보면(<표 4> 참조), 50세 이상(M=3.02)이 가장 높고 40대(M=2.17), 30대(M=1.95)의 순이며, 이와 같은 평균의 차이는 0.1%(F=10.04)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국어 과목의 중요도 또한 1%(F=5.13)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국어 과목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국어과목의 중요도는 1%(F=4.3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국어과목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자녀의 장애정도 역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데(F=5.59,  $p < .01$ ) 장애의 정도가 중증일수록 국어 과목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어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연령별	30-39	59	1.95	.81	집단간	21.13	2	10.57	10.04***
	40-49	72	2.17	.98	집단내	162.09	154	1.05	
	50이상	26	3.02	1.50	합 계	183.22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2.79	1.40	집단간	11.45	2	5.73	5.13**
	고 졸	74	2.10	.87	집단내	171.77	154	1.12	
	대졸이상	54	2.08	1.08	합 계	183.22	156		
소속별	유치부	24	1.75	.57	집단간	14.39	3	4.80	4.35**
	초등부	66	2.13	.97					
	중학부	27	2.22	1.24	집단내	168.84	153	1.10	
	고등부	37	2.70	1.27	합 계	183.22	156		
장 애 정도별	경 도	42	1.76	.86	집단간	12.41	2	6.20	5.59**
	중 도	75	2.38	.99	집단내	170.81	154	1.11	
	최중도	40	2.42	1.32	합 계	183.22	156		

\*\*  $p < .01$ , \*\*\*  $p < .001$

(2) 사회

사회 과목에 대한 학부모들의 중요도 인식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사회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연령별	30-39	57	3.87	.80	집단간	21.10	2	10.55	12.05***
	40-49	71	3.93	.92	집단내	132.12	151	.87	
	50이상	26	2.92	1.19	합 계	153.22	153		
학력별	중졸이하	29	3.33	1.16	집단간	7.31	2	3.65	3.78*
	고 졸	72	3.92	.83	집단내	145.91	151	.96	
	대졸이상	53	3.71	1.05	합 계	153.22	153		
소속별	유치부	24	3.95	.63	집단간	5.20	3	1.73	1.75
	초등부	66	3.86	.92	집단내	148.02	150	.98	
	중학부	27	3.59	1.22	합 계	153.22	153		
	고등부	37	3.48	1.10					
장애 정도별	경 도	42	4.22	.82	집단간	20.22	2	10.11	11.47***
	중 도	73	3.74	.92	집단내	133.00	151	.88	
	최중도	39	3.22	1.06	합 계	153.22	153		

\*  $p < .05$ , \*\*\*  $p < .001$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균(M=3.93)이 가장 높아서 사회 과목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30대(M=3.87), 50대 이상(M=2.92)의 순으로 0.1% 수준(F=12.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학력별 평균의 차이는 5% 수준(F=3.7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고졸의 평균이 3.92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M=3.71), 중졸 이하(M=3.33)가 다음이었다. 자녀의 학교급별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사회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자녀의 장애 정도별에 있어서는 0.1%(F=11.47)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경도(M=4.22), 중도(M=3.74), 최중도(M=3.22)의 순이었다.

(3) 수학

<표 6>은 수학 교과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수학 과목의 중요도에 대한 연령대별 평균은  $p < .05$ (F=4.2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30대의 평균이 3.62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M=3.31), 50대 이상(M=2.80)의 순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낮을수록 수

학 과목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학교 급별에 있어서는 유치부에서의 수학의 중요도(M=3.87)가 가장 높고 중학부에서의 중요도(M=3.11)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6> 수학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62	1.03	집단간	12.24	2	6.12	4.29*
	40-49	72	3.31	1.24	집단내	219.48	154	1.42	
	50이상	26	2.80	1.38	합 계	231.73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06	1.46	집단간	4.22	2	2.11	1.43
	고 졸	74	3.32	1.08	집단내	227.50	154	1.47	
	대졸이상	54	3.53	1.23	합 계	231.73	156		
소속별	유치부	24	3.87	.79	집단간	9.47	3	3.15	2.17
	초등부	69	3.36	1.24	집단내	222.26	153	1.45	
	중학부	27	3.11	1.25	합 계	231.73	156		
	고등부	37	3.16	1.30					
장애 정도별	경 도	42	3.64	1.07	집단간	6.64	2	3.32	2.27
	중 도	75	3.33	1.21	집단내	225.08	154	1.46	
	최중도	40	3.07	1.32	합 계	231.73	156		

\*  $p < .05$

(4) 과학

과학 교과에 대해서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즉 30대의 평균이 3.85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M=3.68), 50대(M=2.61) 이상의 순이었으며 0.1%(F=15.04)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과학 교과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1%(F=5.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중요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서 유치부 자녀의 부모 평균이 4.18로 가장 높고 고등부 자녀의 부모가 인식하는 중요도가 3.18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낮을수록 과학 교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도(M=3.90), 중도(M=3.58), 최중도(M=3.17)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장애 정도별 중요도 평균의 차이는 1%(F=5.02)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별 특성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7> 과학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8	3.85	.84	집단간	29.26	2	14.63	15.04***
	40-49	71	3.68	.90	집단내	147.77	152	.97	
	50이상	26	2.61	1.40	합 계	177.03	154		
학력별	중졸이하	29	3.17	1.20	집단간	5.95	2	2.97	2.64
	고졸	72	3.61	.89	집단내	171.08	152	1.12	
	대졸이상	54	3.72	1.17	합 계	177.03	154		
소속별	유치부	24	4.18	.56	집단간	16.14	3	5.38	5.05**
	초등부	67	3.64	.87	집단내	160.89	151	1.06	
	중학부	27	3.35	1.18	합 계	177.03	154		
	고등부	37	3.18	1.36					
장애 정도별	경도	42	3.90	.84	집단간	10.97	2	5.48	5.02**
	중도	73	3.58	1.03	집단내	166.06	152	1.09	
	최중도	40	3.17	1.23	합 계	177.03	154		

\*\*  $p < .01$ , \*\*\*  $p < .001$

(5) 건강

학부모의 연령( $F=7.81$ ,  $p < .01$ )이 낮을수록, 자녀의 장애정도( $F=4.30$ ,  $p < .05$ )가 낮을수록 건강 교과에 대한 중요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그리고 자녀의 학교급(부)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 $F=3.44$ ,  $p < .05$ ), 유치부 부모들의 평균이 4.1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학부( $M=3.64$ ), 초등부( $M=3.63$ ), 고등부( $M=3.37$ )의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교과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8> 건강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94	.77	집단간	14.09	2	7.04	7.81**
	40-49	72	3.64	.95	집단내	138.92	154	.90	
	50이상	26	3.05	1.25	합 계	153.01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39	1.36	집단간	2.54	2	1.27	1.30
	고졸	74	3.69	.76	집단내	150.47	154	.97	
	대졸이상	54	3.75	1.02	합 계	153.01	156		
소속별	유치부	24	4.18	.50	집단간	9.67	3	3.22	3.44*
	초등부	69	3.63	.94	집단내	143.34	153	.93	
	중학부	27	3.64	.97	합 계	153.01	156		
	고등부	37	3.37	1.19					
장애 정도별	경도	42	3.95	.88	집단간	8.09	2	4.04	4.30*
	중도	75	3.67	.87	집단내	144.92	154	.94	
	최중도	40	3.32	1.19	합 계	153.01	156		

\*  $p < .05$ , \*\*  $p < .01$

(6) 예능

<표 9>는 부모의 예능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예능 교과의 중요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예능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별	30-39	59	3.66	.97	집단간	10.89	2	5.44	4.21*
	40-49	72	3.40	1.12	집단내	199.19	154	1.29	
	50이상	26	2.88	1.47	합 계	210.08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31	1.33	집단간	.80	2	.40	.29
	고 졸	74	3.48	1.02	집단내	209.28	154	1.35	
	대졸이상	54	3.37	1.24	합 계	210.08	156		
소속별	유치부	24	4.00	.72	집단간	11.87	3	3.95	3.05*
	초등부	69	3.40	1.07	집단내	198.21	153	1.29	
	중학부	27	3.07	1.41	합 계	210.08	156		
	고등부	37	3.29	1.24					
장 애 정도별	경 도	42	3.42	1.12	집단간	.02	2	.01	.01
	중 도	75	3.40	1.10	집단내	210.06	154	1.36	
	최중도	40	3.42	1.31	합 계	210.08	156		

\*  $p < .05$

부모의 연령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p < .05$ ( $F=4.21$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중요도 인식 차이에 있어서는 유치부가 평균 4.0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초등부( $M=3.40$ ), 고등부( $M=3.29$ ), 중등부( $M=3.07$ )의 순으로 5%( $F=3.05$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그리고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예능 교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7) 직업

직업 교과에 대한 부모의 중요도 인식정도를 정리하며 <표 10>과 같다. 즉 부모의 연령( $F=3.99$ ,  $p < .05$ )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 $F=3.97$ ,  $p < .05$ )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학교급별( $F=3.71$ ,  $p < .05$ )이 낮을수록, 자녀의 장애정도( $F=3.41$ ,  $p < .05$ )가 낮을수록 직업 교과의 중요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특성에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다.

<표 10> 직업 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83	1.08	집단간	11.65	2	5.82	3.99*
	40-49	72	3.68	1.12	집단내	224.91	154	1.46	
	50이상	26	3.03	1.63	합 계	236.57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20	1.63	집단간	11.60	2	5.80	3.97*
	고 졸	74	3.55	1.04	집단내	224.96	154	1.46	
	대졸이상	54	3.96	1.14	합 계	236.57	156		
소속별	유치부	24	4.25	.84	집단간	16.07	3	5.35	3.71*
	초등부	69	3.68	1.18	집단내	220.49	153	1.44	
	중학부	27	3.51	1.08	합 계	236.57	156		
	고등부	37	3.21	1.47					
장애 정도별	경 도	42	3.90	1.05	집단간	10.03	2	5.01	3.41*
	중 도	75	3.69	1.06	집단내	226.54	154	1.47	
	최중도	40	3.22	1.57	합 계	236.57	156		

\*  $p < .05$

## 2) 재량활동 편성과목

### (1) 교과재량활동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재량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연령에 따른 중요도 인식은 30대(M=3.5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40대(M=3.41), 50대 이상(M=2.92)의 순으로 5%(F=4.16)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녀의 학교급별에 따른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결과는 5%(F=2.96) 수준에서, 장애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도 5%(F=3.16)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1> 교과재량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58	.83	집단간	7.94	2	3.97	4.16*
	40-49	72	3.41	.96	집단내	146.92	154	.95	
	50이상	26	2.92	1.27	합 계	154.86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36	1.33	집단간	.16	2	.08	.08
	고 졸	74	3.43	.75	집단내	154.70	154	1.00	
	대졸이상	54	3.37	1.08	합 계	154.86	156		
소속별	유치부	24	3.87	.71	집단간	8.51	3	2.83	2.96*
	초등부	69	3.42	.93	집단내	146.35	153	.95	
	중학부	27	3.12	.87	합 계	154.86	156		
	고등부	37	3.22	1.23					
장애 정도별	경 도	42	3.64	.74	집단간	6.10	2	3.05	3.16*
	중 도	75	3.42	1.06	집단내	148.76	154	.96	
	최중도	40	3.10	1.04	합 계	154.86	156		

\*  $p < .05$

(2) 창의적 재량활동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창의적 재량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서 30대의 평균이 3.50으로 가장 높고 40대의 평균이 3.35, 50대 이상이 2.90으로 5%(F=3.2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표 12> 참조).

<표 12> 창의적 재량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연령별	30-39	58	3.50	.78	집단간	6.70	2	3.35	3.29*
	40-49	71	3.35	.99	집단내	154.43	152	1.01	
	50이상	26	2.90	1.40	합 계	161.14	154		
학력별	중졸이하	29	3.28	1.30	집단간	.88	2	.44	.41
	고 졸	72	3.41	.85	집단내	160.26	152	1.05	
	대졸이상	54	3.25	1.06	합 계	161.14	154		
소속별	유치부	24	3.76	.54	집단간	5.46	3	1.82	1.76
	초등부	67	3.29	.95	집단내	155.67	151	1.03	
	중학부	27	3.23	1.01	합 계	161.14	154		
	고등부	37	3.20	1.30					
장애 정도별	경 도	42	3.57	.74	집단간	5.38	2	2.69	2.62
	중 도	73	3.35	1.07	집단내	155.75	152	1.02	
	최중도	40	3.06	1.13	합 계	161.14	154		

\*  $p < .05$

부모의 배경변인에 있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자녀의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창의적 재량활동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3) 특별활동 편성과목

(1) 개발활동

부모의 연령에 따른 개발활동의 중요도 인식을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5%(F=3.7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30대의 평균이 3.29로 가장 높고 40대가 3.24, 50대 이상의 중요도 평균은 2.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 소속별, 장애정도별 개발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3> 계람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29	.78	집단간	8.25	2	4.127	3.71*
	40-49	72	3.24	1.12	집단내	170.94	154	1.110	
	50이상	26	2.65	1.34	합 계	179.19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2.94	1.27	집단간	2.09	2	1.048	.91
	고 졸	74	3.26	1.03	집단내	177.09	154	1.150	
	대졸이상	54	3.14	1.00	합 계	179.19	156		
소속별	유치부	24	3.37	.49	집단간	1.72	3	.576	.49
	초등부	69	3.18	1.11	집단내	177.46	153	1.160	
	중학부	27	3.11	1.20	합 계	179.19	156		
	고등부	37	3.04	1.17					
장애 정도별	경 도	42	3.26	.82	집단간	3.44	2	1.722	1.50
	중 도	75	3.24	1.17	집단내	175.74	154	1.141	
	최중도	40	2.91	1.07	합 계	179.19	156		

\*  $p < .05$

(2) 자치활동

<표 14>는 부모의 자치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연령별( $F=8.11, p < .001$ ), 소속별( $F=2.77, p < .05$ ), 장애정도별( $F=6.00, p < .01$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도의 평균도 높게 나타나는데 30대의 평균이 3.59로 가장 높고 40대( $M=3.29$ ), 50대 이상( $M=2.53$ )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녀의 장애정도 역시 그 정도가 낮을수록 중요도의 평균도 높게 나타나서 경도장애의 평균이 3.48, 중도 평균 3.45, 최중도 평균 2.75의 순이었다.

<표 14> 자치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59	.89	집단간	20.10	2	10.05	8.11***
	40-49	71	3.29	1.12	집단내	189.48	153	1.23	
	50이상	26	2.53	1.47	합 계	209.59	155		
학력별	중졸이하	29	3.10	1.39	집단간	3.26	2	1.63	1.21
	고 졸	74	3.43	1.06	집단내	206.32	153	1.34	
	대졸이상	53	3.16	1.15	합 계	209.59	155		
소속별	유치부	24	3.62	.71	집단간	10.86	3	3.62	2.77*
	초등부	69	3.43	1.09	집단내	198.72	152	1.30	
	중학부	26	2.84	1.22	합 계	209.59	155		
	고등부	37	3.08	1.38					
장애 정도별	경 도	41	3.48	1.05	집단간	15.25	2	7.63	6.00**
	중 도	75	3.45	1.15	집단내	194.33	153	1.27	
	최중도	40	2.75	1.14	합 계	209.59	155		

\*  $p < .05$ , \*\*  $p < .01$ , \*\*\*  $p < .001$

(3) 봉사활동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을 통한 봉사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집단간 중요도 차이의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봉사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연령별	30-39	58	3.00	.95	집단간	5.05	2	2.52	1.84
	40-49	72	3.16	1.19	집단내	209.88	153	1.37	
	50이상	26	2.65	1.49	합 계	214.94	155		
학력별	중졸이하	29	2.62	1.26	집단간	5.69	2	2.84	2.08
	고 졸	73	3.09	1.08	집단내	209.24	153	1.36	
	대졸이상	54	3.12	1.22	합 계	214.94	155		
소속별	유치부	24	3.25	.67	집단간	1.97	3	.65	.46
	초등부	68	3.02	1.25	집단내	212.97	152	1.40	
	중학부	27	2.96	1.19	합 계	214.94	155		
	고등부	37	2.89	1.28					
장애 정도별	경 도	42	3.50	.83	집단간	15.55	2	7.77	5.97**
	중 도	74	2.94	1.15	집단내	199.38	153	1.30	
	최중도	40	2.65	1.36	합 계	214.94	155		

\*\*  $p < .01$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른 중요도 인식이 1%( $F=5.97$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 경도장애의 평균이 3.50으로 가장 높고 중도( $M=2.94$ ), 최중도( $M=2.65$ )의 순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별, 학력별, 자녀의 학교급(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4) 적응활동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의 평균이 3.44로 가장 높고 다음은 평균이 3.34인 30대로 5%( $F=4.15$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리고 자녀의 장애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5%( $F=4.45$ ) 수준에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데 자녀의 장애정도가 경도일수록 적응활동의 중요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적응활동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학교급(부)별에 따른 중요도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유치부에

대한 적응활동의 중요도가 가장 높아서 평균이 3.50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별, 자녀의 학교급(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16> 적응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별	30-39	59	3.34	.72	집단간	7.41	2	3.70	4.15*
	40-49	71	3.44	.99	집단내	136.37	153	.89	
	50이상	26	2.82	1.21	합 계	143.78	155		
학력별	중졸이하	29	3.01	1.19	집단간	3.45	2	1.72	1.88
	고 졸	73	3.31	.83	집단내	140.32	153	.91	
	대졸이상	54	3.44	.97	합 계	143.78	155		
소속별	유치부	24	3.50	.36	집단간	2.14	3	.71	.76
	초등부	68	3.27	1.00	집단내	141.64	152	.93	
	중학부	27	3.40	.95	합 계	143.78	155		
	고등부	37	3.14	1.15					
장 애 정도별	경 도	41	3.63	.67	집단간	7.91	2	3.95	4.45*
	중 도	75	3.28	.98	집단내	135.87	153	.88	
	최중도	40	3.01	1.08	합 계	143.78	155		

\*  $p < .05$

(5) 행사활동

“수련활동을 한다”, “의식행사활동을 한다”의 항목을 통해 행사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행사활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 ( $F=6.54, p < .01$ ), 30대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평균 3.22로 가장 높고, 40대의 평균이 3.18, 50대 이상의 평균이 2.36의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행사활동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수준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 $F=7.24, p < .01$ ),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의 정도도 높았다. 즉 대졸 이상의 중요도 평균은 3.24, 고졸의 평균 3.20, 중졸 이하의 평균 2.37 순이었다. 자녀의 학교급(부)별에서는 유치부의 평균이 가장 높고 장애정도에 있어서는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17> 행사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연령별	30-39	59	3.22	.80	집단간	15.23	2	7.61	6.54**
	40-49	72	3.18	1.16	집단내	179.13	154	1.16	
	50이상	26	2.36	1.35	합계	194.36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2.37	1.13	집단간	16.70	2	8.35	7.24**
	고졸	74	3.20	.97	집단내	177.65	154	1.15	
	대졸이상	54	3.24	1.16	합계	194.36	156		
소속별	유치부	24	3.37	.55	집단간	6.12	3	2.04	1.65
	초등부	69	3.03	1.05	집단내	188.24	153	1.23	
	중학부	27	3.24	1.19	합계	194.36	156		
	고등부	37	2.78	1.37					
장애 정도별	경도	42	3.21	1.00	집단간	1.40	2	.70	.56
	중도	75	2.98	1.12	집단내	192.95	154	1.25	
	최중도	40	3.05	1.21	합계	194.36	156		

\*\*  $p < .01$

#### 4) 치료교육 편성과목

##### (1) 언어치료

<표 18>은 언어치료에 대한 부모들의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언어치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30대의 언어치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 정도는 3.87로 가장 높으며 0.1%( $F=7.89$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언어치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유치부에서의 언어치료의 중요도 인식 평균이 4.12로 가장 높고, 고등부에서의 언어치료의 중요도가 2.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0.1%( $F=3.86$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부모들의 학력별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고졸의 평균이 3.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대졸 이상의 평균이 3.60의 순이었으며, 이와 같은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0.1%( $F=5.30$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의 정도와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1%( $F=3.56$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중도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이 평균 3.96으로 언어치료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도( $M=3.55$ ), 최중도( $M=3.46$ )의 순이었다.

<표 18> 언어치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별	30-39	59	3.87	.72	집단간	37.45	2	18.72	23.45***
	40-49	70	3.67	.95	집단내	121.34	152	.79	
	50이상	26	2.47	1.04	합 계	158.79	154		
학력별	중졸이하	29	2.88	1.26	집단간	16.72	2	8.36	8.944***
	고 졸	72	3.77	.74	집단내	142.07	152	.93	
	대졸이상	54	3.60	1.05	합 계	158.79	154		
소속별	유치부	24	4.12	.53	집단간	20.54	3	6.84	7.47***
	초등부	67	3.67	.88	집단내	138.25	151	.91	
	중학부	27	3.50	.93	합 계	158.79	154		
	고등부	37	2.99	1.25					
장애 정도별	경 도	155	3.55	1.01	집단간	10.66	2	5.33	5.47**
	중 도	41	3.96	.80	집단내	148.13	152	.97	
	최중도	74	3.46	1.04	합 계	158.79	154		

\*\*  $p < .01$ , \*\*\*  $p < .001$

(2) 일상생활훈련

연령에 따른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평균차이를 <표 19>를 통해 살펴보면, 0.1%( $F=7.89$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30대의 평균이 3.96으로 가장 높고, 40대가 평균 3.80, 50대 이상이 평균 2.92의 순이었다.

<표 19>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분	N	기술 통계		변량 분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별	30-39	59	3.96	.95	집단간	20.61	2	10.30	7.89**
	40-49	72	3.80	1.05	집단내	201.05	154	1.30	
	50이상	26	2.92	1.65	합 계	221.66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08	1.46	집단간	14.27	2	7.13	5.30**
	고 졸	74	3.86	.95	집단내	207.39	154	1.34	
	대졸이상	54	3.86	1.23	합 계	221.66	156		
소속별	유치부	24	4.31	.84	집단간	15.61	3	5.20	3.86*
	초등부	69	3.76	1.02	집단내	206.05	153	1.34	
	중학부	27	3.68	1.33	합 계	221.66	156		
	고등부	37	3.28	1.42					
장애 정도별	경 도	42	4.09	.82	집단간	9.80	2	4.90	3.56*
	중 도	75	3.49	1.23	집단내	211.86	154	1.37	
	최중도	40	3.75	1.34	합 계	221.66	156		

\*  $p < .05$ , \*\*  $p < .01$

그리고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평균이 3.08로 가장 낮았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의 학부모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은 3.86으로, 이와 같은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5.30, p<.01$ ).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급별에 있어서는 유치부의 평균이 4.31로 가장 높고, 초등부( $M=3.76$ ), 중학부( $M=3.68$ ), 고등부( $M=3.28$ )의 순이었으며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녀의 장애정도가 경도인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 정도도 높아서 평균이 4.09였으며 다음은 최중도( $M=3.75$ ), 중도( $M=3.49$ )의 순이었다( $F=3.56, p<.05$ ).

(3) 작업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익힌다”와 “전신의 종합훈련을 통하여 작업의 기초기능을 향상시킨다”의 문항을 통해 파악한 작업치료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장애 정도별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중졸 이하( $M=2.86$ )의 부모보다는 대졸 이상( $M=3.37$ )의 부모가, 그리고 고졸( $M=3.59$ )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F=6.03, p<.01$ ).

<표 20> 작업치료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연령별	30-39	58	3.59	.86	집단간	21.54	2	10.77	12.54***
	40-49	72	3.51	.92	집단내	131.37	153	.85	
	50이상	26	2.55	1.07	합 계	152.92	155		
학력별	중졸이하	29	2.86	1.20	집단간	11.17	2	5.58	6.03**
	고 졸	73	3.59	.76	집단내	141.74	153	.92	
	대졸이상	54	3.37	1.05	합 계	152.92	155		
소속별	유치부	24	3.43	.86	집단간	6.35	3	2.11	2.19
	초등부	68	3.58	.91	집단내	146.56	152	.96	
	중학부	27	3.24	.88	합 계	152.92	155		
	고등부	37	3.09	1.21					
장 애 정도별	경 도	42	3.85	.72	집단간	14.95	2	7.47	8.29***
	중 도	74	3.31	1.07	집단내	137.96	153	.90	
	최중도	40	3.02	.91	합 계	152.92	155		

\*\*  $p<.01$ . \*\*\*  $p<.001$

(4) 감각·운동·지각훈련

감각·운동·지각의 중요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부모의 연령( $F=6.79, p<.01$ )과 학력( $F=3.73, p<.05$ )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대와 40대가 인식하고 있는 감각·운동·지각의 중요도는 평균이 3.68로 동일하며, 50대 이상의 부모들의 중요도 평균은 2.55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졸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감각·운동·지각에 대한 중요도 정도는 평균 3.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은 평균 3.37로 다음이었다. 그리고 중졸 이하는 2.86에 그쳤다. 학교급(부)별로는 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평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21> 감각·운동·지각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 술 통 계		변 량 분 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8	3.68	.83	집단간	13.33	2	6.66	6.79**
	40-49	72	3.68	.95	집단내	150.14	153	.98	
	50이상	26	2.90	1.34	합 계	163.48	155		
학력별	중졸이하	29	3.12	1.30	집단간	7.60	2	3.80	3.73*
	고 졸	73	3.72	.78	집단내	155.87	153	1.01	
	대졸이상	54	3.56	1.10	합 계	163.48	155		
소속별	유치부	24	3.68	.80	집단간	5.24	3	1.74	1.67
	초등부	68	3.65	.94	집단내	158.24	152	1.04	
	중학부	27	3.64	1.08	합 계	163.48	155		
	고등부	37	3.22	1.21					
장 애 정도별	경 도	41	3.82	.84	집단간	4.10	2	2.05	1.96
	중 도	75	3.46	.98	집단내	159.37	153	1.04	
	최중도	40	3.46	1.23	합 계	163.48	155		

\*  $p<.05$ , \*\*  $p<.01$

(5) 심리·행동적응훈련

<표 22>는 부모의 심리·행동적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변량분석 결과를 집단간 특성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자녀의 장애정도에 따른 중요도의 평균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지 못할 뿐, 그 외의 연령( $F=10.22, p<.001$ ), 학력( $F=5.35, p<.01$ ), 소속별( $F=4.19, p<.01$ ) 변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30대인 부모들이 심리·행동적응의 중요도 평균은 3.97로 40대( $M=3.79$ )와 50대

이상(M=2.93)의 집단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고졸인 학부모들의 중요도 평균이 3.90으로 대졸 이상(M=3.77)과 중졸 이하(M=3.17) 부모들의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심리·행동적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치부 자녀의 부모들의 평균이 4.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초등부(M=3.66), 중학부(M=3.64), 고등부(M=3.45)의 순이었다.

<표 22> 심리·행동적응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구 분		N	기술 통계		변 량 분 석				F
			평균	표준편차	변량원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연령별	30-39	59	3.97	.73	집단간	20.31	2	10.15	10.22***
	40-49	72	3.79	1.03	집단내	152.98	154	.99	
	50이상	26	2.93	1.35	합 계	173.29	156		
학력별	중졸이하	29	3.17	1.27	집단간	11.26	2	5.63	5.35**
	고 졸	74	3.90	.84	집단내	162.03	154	1.05	
	대졸이상	54	3.77	1.10	합 계	173.29	156		
소속별	유치부	24	4.37	.57	집단간	13.16	3	4.38	4.19**
	초등부	69	3.66	.92	집단내	160.13	153	1.04	
	중학부	27	3.64	1.23	합 계	173.29	156		
	고등부	37	3.45	1.22					
장 애 정도별	경 도	42	3.84	.95	집단간	.87	2	.43	.39
	중 도	75	3.66	.96	집단내	172.42	154	1.12	
	최중도	40	3.70	1.30	합 계	173.29	156		

\*\*  $p < .01$ , \*\*\*  $p < .001$

## I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첫째, 제주지역의 정신지체아 부모들은 교과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다음이 치료교육활동, 재량활동이며, 특별활동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한다. 교과에서는 국어, 재량활동은 교과재량, 특별활동에서는 적응활동, 치료교육활동에서는 심리·행동적응훈련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

둘째, 정신지체아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육과정 영역 및 편성과목별 중요도는 부모의 학력, 자녀의 학교급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각 과목별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으로는 국어의 경우 부모의 연령과 학력, 자녀의 소속과 장애정도이며, 사회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 자녀의 장애정도이다. 그리고 수학은 부모의 연령에서 과학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소속 및 장애정도, 건강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소속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인다. 예능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 차이는 부모 연령과 자녀의 소속, 직업 교과에 대한 중요도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자녀의 소속과 장애정도에 따라 나타난다. 재량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재량활동은 부모의 연령, 자녀의 소속과 장애정도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평균차가 발생한다. 특별활동 중 계발활동은 부모의 연령, 자치활동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소속 그리고 장애정도, 봉사활동은 자녀의 장애정도, 적응활동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장애정도, 행사활동은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유의미한 평균차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치료교육 중 언어치료의 중요도에 유의미한 평균차를 보인 배경변인은 부모의 연령과 학력, 자녀의 소속과 장애정도이며, 일상생활훈련은 부모의 연령과 학력, 자녀의 소속과 장애정도에 따라 그리고 작업치료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 자녀의 장애정도, 감각·운동·지각훈련은 부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평균차가 발생한다. 또한 심리·행동적응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자녀의 소속 학교급별에 따라 발생한다.

## 2. 제 언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있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 참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필요로 하며, 더욱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질적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창욱 (2005).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실천특수교육*, 2005(5·6), 8-13.
- 고성대 (1994).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참여형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부 (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I*.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립특수교육원 (2000).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방안 연구*.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권요한·이만영 (2004). 특수학교 교육과정 평가 모형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2), 249-277.
- 교육부 (1991). *특수학급 운영 개선방향*. 서울 : 교육부.
- 김길순·변찬석 (2005).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정성 평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181-196.
- 김영일·강정화 (2005). 부모교육에 대한 시각장애아부모의 요구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0(2), 151-176.
- 우정환·이성환 (2005). 특수학급학생 교육에 있어 부모 참여 및 역할 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155-180.
- 이유훈·김경진·박정연 (2001).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분석*.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Turnbull, A. P., & Turnbull, H. R. (1997). *Family, professionals & exceptionality: Special partnership*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